

# 3



## 천주교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이 글은 1914년에 미국의 Loizeaux Brothers가 발간한 「Letters to a Roman Catholic Priest」를 번역한 것이다. 아이언사이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인물이다. 이 소책자는 저자가 A.M.S.라는 약칭의 한 천주교 사제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 사제를 만났으며 교양이 넘치는 사제와의 대화로 인해 큰 기쁨을 느꼈다. 헤어질 때에 저자는 사제에게 성경의 일부분을 다룬 소책자를 주었고 이에 대해 사제는 후에 편지를 보냈다. 이 두 사람의 서신 교환은 저자의 병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저자는 오랫동안 사제에게 글을 쓰지 못했다. 처음에 보낸 편지들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 나중에 쓴 것들은 두 장씩 썼기에 남아 있다. 여기 이 글들은 남아 있는 그 편지들이며 저자는 이 글들이 천주교를 바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책자로 펴냈다.

## 첫째 편지

A.M.S. 사제님께.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아직까지도 사제께서 보내 주신 마지막 편지 두 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그것들을 무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나 사정상 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뒤에는 아파서 병석에 누워 몇 달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 그만 제때에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제와 다시 편지 교환을 하기에 앞서 저는 천주교의 가르침과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양쪽을 다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뉴먼(Newman)<sup>1)</sup>과 치니키(Chiniquy)<sup>2)</sup>의 책; 기본(Gibbon)과 리틀데일(Littledale)의 책; 「카톨릭 백과사전」과 프로테스탄트 역사가들의 글; 교부들의 글, 니케아 공회<sup>3)</sup> 전·후와 중세와 현대 신학자들의 서적들 등등.

---

1) 19세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카톨릭 성직자, 저술가.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의 옥스퍼드 운동을 이끌었으며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제 추기경이 되었다. 그는 교회의 교리적 권위에 대한 강조를 되살리고 영국 성공회를 5세기까지의 '카톨릭', 즉 보편 교회의 형태로 개혁하라고 촉구하였다. 1845년 무렵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발전한 진정한 현대 교회라고 보게 되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뉴먼의 변절로 인해 많은 성공회 사제들이 천주교로 넘어갔다.

2) 로마 카톨릭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밝혀 준 「카톨릭 교회에서의 50년」같은 명저를 남긴 전직 카톨릭 사제.

3) 주후 325년 고대 도시 니케아(지금의 터키 이즈니크)에서 열린 그리스도교 교회의 첫째 에큐메니컬 공의회.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하여 개회식을 주재하였으며 논의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가 처음 내세운 이단 교리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임을 강조했음) 때문에 동방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 공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교황 실베스테르 1세는 이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특사를 보냈다. 이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일부 참석자들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성자가 성부와 완전히 동등함을 나타내기 위해 성서에 없는 단어 '호모우시오스'('본질상 같은'의 뜻)를 니케아 신조에 포함시켰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리우스를 추방하였는데, 이는 교회와 국가의 공고한 유대와 교회의 일에 세속의 후원이 중요함을 뚜렷이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사실 저는 어떤 편견 없이 또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는 일이 없이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사제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예전보다 한결 더 진지하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의 연구를 통해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천주교 교리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 혹은 기독교론 — 를 깊이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셔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두는 한 몸 즉 보편적인 교회(The Catholic Church)의 한 지체입니다.<sup>4)</sup>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참 신자는 모두 다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주교 즉 교황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계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라

---

4) 카톨릭은 ‘보편적’이란 뜻의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나온 말로서 2세기 이래로 교회의 저술가들이 지 교회 혹은 이단 종파와 분파로부터 그리스도교 교회 전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처음 3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의 발전 과정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예루살렘의 성 키릴루스가 쓴 「교리문답 *Catecheses*」(348)인데, 이 책에서 그는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른 이유를 교회의 세계적 보편성, 교리의 완전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교회의 적응성,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혹은 분파주의자로 정죄 받은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보편성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혼란스럽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뿐 아니라 동방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개신교 교회들과 여러 국교회 및 다른 교파들도 자신들을 거룩한 카톨릭 교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저자는 여기서 원래 의미의 ‘카톨릭’이란 단어를 들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임.

고 주장하는 로마의 교황이 이처럼 두려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갈 1:6-9)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서 ‘복된 성사 안에 담긴 실제적 임재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 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sup>5)</sup> 그러면서 사제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복된 성찬 속에 실제로 임재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까?” 이제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고대의 모든 기록은 사제의 주장 즉 미사에서 빵 조각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반박합니다.”

저는 사제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무모하신 분이라는 점에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제께서는 교부들과 역사에 대해 잘 아십니다. 특히 교부들의 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제께서는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의 교부들이 어디에서도 지금 사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가 수세기 동안 그런 교리를 주장해 왔다는 것은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 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가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루터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쳤으며 헨리 8세 이후의 일부 영국 국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천주교의 교리에 동조했습니다.

---

5) 지금 저자는 천주교의 화체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화체설은 성변화(聖變化)라고도 하며 천주교에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12세기에 처음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린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신봉하고 있으며, 비록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존한다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문자적 진리를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15세기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잘 정의한 이 화체설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문헌에 수록되었다. 신비스러운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실제 임재에 대한 신앙은 스콜라적인 형식을 갖추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용어로 그것을 설명했던 교부신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그러나 사실 이런 가르침들은 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대의 가르침은 최근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지금 ‘고대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의 글을 가리키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권위 있는 기록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제 앞에 다 제시하면서 사제께서 가능한 한 니케아 공회 이후의 신학자들이 세워 놓은 이론은 잊어버리고 단지 이 말씀들만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께서는 또한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들이 천주교의 해석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2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기사도 비슷하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마가복음 14장 22-25절을 인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다시는 마

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기사는 두 절(눅 22:19-20) 밖에 되지 않습니다(17-18절은 주의 만찬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잔을 가리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사제께서 아시다시피 성도 요한은 기독교의 어떤 명절을 제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관해서는 나중의 편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에서 주의 만찬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하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제 주의 만찬에서 ‘잔’에 관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sup>6)</sup> 여기서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This is my blood which is shed).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흘렸다고 하시므로 “이것은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흘렸다.”(which is shed)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잔에 담긴 액체를 가리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the fruit of the vine)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액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면 사실 우스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제는 마가복음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누가복음은 이를 더 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사제께서는 과연 그때에 주님께서 “이 잔 속에 새 언약이 담겨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새 언약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잔’에 대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하실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씀

---

6)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이제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에서 천주교 사본을 따라 ‘새’ 즉 ‘New’ 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천주교에서는 제사장 체제 하에서 아직도 구약이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

하셨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주어져서 희생되고 찢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빵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빵이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배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다른 어떤 의미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혼과 신성이 하나 속에서 실제로 임재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그로 인해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실재적 임재의 교리 즉 화체설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sup>7)</sup>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빵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죽음에 넘겨진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는 구별된 그분의 피를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몸과 피의 분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기록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의

7) 천주교회에서는 미사에서 성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고 빵만 줍니다.



만찬을 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여기서도 이것은 여전히 빵이며 잔입니다. 빵과 잔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빵과 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의 미사를 행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 드러난 주의 만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평신도와는 구별된 성직자 계급 혹은 거창한 고위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천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의 단순한 명절을 지키는 것뿐이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빵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십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 둘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소위 평신도라 불리는 신자들에게 주의 만찬의 잔을 주지 않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제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고대 자료들이 사제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의 요소인 빵과 잔 중에서 신도가 빵에만 참여할 것을 명한 법령은 1415년 6월 15일에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에 교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을 통과시킨 공회가 1415년 5월 29일에 교황 요한 23세를 폐위시켰으며 그 뒤 1417년 11월 11일에 가서야 그의 후임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평신도라도 빵과 잔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변증가들은 교황이 주의 만찬의 두 요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에 참여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제들은 원래의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게 하고 평신도들은 한 요소에만 즉 빵에만 참여하게 하도록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콘스탄스 공회의 이 법령은 그 전에 내려온 천주교의 다른 법령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위대한 교황 레오’ (Pope Leo the Great)는 마니 교도들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 — 물론 그는 지금 주의 만찬의 빵을 말합니다 — 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

속한 피 — 천주교 해석에 따르면 그는 지금 잔을 가리킵니다 — 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같이 신성을 모독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알리며 이들을 사제들의 권위로 성도들의 교제권에서 추방할 것을 알리노라”(그의 41번 설교에서 인용함).

한편 교황 겔라시오 1세는 교황 레오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조리쿠스와 요한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 이것은 후에 천주교 법령집에 수록되었음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스런 몸만을 먹고 거룩한 피의 잔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어떤 미신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런 자들은 성찬을 다 받든지 아니면 성찬에서 완전히 제외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 동일한 성찬물 즉 그 신비를 나누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다”(Corp. Jur. Can. Decree. 3:11, 12).

교황 우르반 2세가 주후 1095년에 주재한 클레몬트 공회의 선언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나 조심하려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몸과 피를 동시에 받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제단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노라.”

그 다음 세기인 주후 1118년에 교황 파스칼 2세는 클루니의 수도원장인 폰티우스에게 글을 쓰면서 성 키프리안(St. Cyprian)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프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정하신 전통을 지키도록 하라. 사람의 제도를 추종하면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하고 명하신 데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님께서 빵을 따로 주시고 포도즙을 따로 주셨으므로 이 전통을 가르치고 성 교회에서 항상 지키도록 명령하라. 빵을 삼킬 수 없는 유아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교황도 없었던 종교 회의에서 네 교황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다면 천주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실행과 교리가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Apostolic)이라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천주교는 이 점에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카톨릭 신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 말씀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사제가 아니면 잔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주의 만찬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지 커다란 영적 진리를 보여 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sup>8)</sup> 만일 사제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사제께서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을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 역시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물론 사제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회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회

---

8)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성찬식을 행하는 개신교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의 만찬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마치 빵과 피가 신자들에게 무슨 효력을 주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천주교의 잘못된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므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의 해석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6:27).

사실 그들은 그분께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베푼 모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빵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47-48절).

이 말을 듣고 불신에 찬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 이에 예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53-54절).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행하려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몸도 죽음으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

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새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57절은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즉 아버지를 신뢰하리라.”는 말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6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직 제정하지도 않은 주의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그분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영적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어떤 공회도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 피를 마시며 이

로써 영원한 생명 즉 천주교 미사를 통해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천주교 신자 중에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영원한 생명 —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생명 — 을 소유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미사라는 성례전도 천주교의 다른 모든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그 참여자에게 마지막 결말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도 결국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47절)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달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실례가 되지 않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제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선물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제께서는 스스로 영생을 소유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제께서는 천주교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천주교의 명령에 복종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사제께서는 죄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십니까? 사제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제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 친애하는 사제님, 만일 사제께서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충성을 다한 천

주교회는 어찌하여 사도 시대의 기독교를 기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확신과 평화를 주지 못하는가?”

혹시 사제께서는 지금까지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사제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실로 사제께서 속한 천주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도 시대의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심각한 배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저는 천주교 성찬식에서 미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드림.



## 셋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저는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이는 천주교의 소위 미사라는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제께서 미사를 살아 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라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사제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2세기까지는 기름부음 받은 사제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제단 위에서 이 희생 제사가 드러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초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교리 즉 교회의 전 체계의 중심이 되는 이 교리에 대해 오류를 범했겠습니까? 혹은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리 속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폐기시켜야 할 그런 황당한 제도를 만드실까요? 그렇다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교회)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등과 같은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사실 저는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리의 영께서는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옥의 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 —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 — 이미 오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의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단 교리는 은혜의 언약에다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1세기의 이단 교리가 오늘날에는 정통 교리가 되고 말았다.”고 잘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즉 갈라디아 사람들의 오류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오류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와는 달리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오류가 세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 즉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마치 폭풍과 같이 몰아치던 종교 개혁 시대에 새로이 발견된 교리처럼 간주했으며 이것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방에 몰래 기어 들어온 오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는 진리로부터 떠난 세 가지 중대한 오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치하려는 이성주의 철학적 경향이며, 둘째는 은혜의 진리를 대체하려는 율법 중시 경향이며, 셋째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머리되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몸을 확대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무서운 의식주의의 제도화 경향입니다. 저는 이제 사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제께서는 이 같은 오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현대 천주교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디모데전후서도 오류들이 급속히 퍼져 나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즉 그의 생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곳의 기독교회들이 아직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에 가장 오래된 모임이 형성된 아시아의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역시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초창기부터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의 상과 단순한 기념 명절을 버리고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거나 사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물론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Catholic)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무렵에 제단이 주의 만찬의 상을 대체하고 미사라는 희생 제사가 주의 만찬을 대체했음을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 즉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 주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날에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초대 크리스천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포도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플리니의 저 유명한 편지도 그가 살던 때에 여전히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음을 사실로 보여 줄 뿐입니다. 플

리니는 자기의 상관인 트라얀 황제에게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성 모독이나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정탐꾼들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며 빵과 포도즙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 같은 단순함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 제사와 그분께서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사역에 관한 진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주 후대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예언한 대로 사나운 이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위탁한 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뿐입니다. 그는 결코 교회의 권위나 공회의 결정이나 교황의 무오류성 같은 것에다 그들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산 자나 죽은 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 즉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희생 제사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희생 제사 즉 그림자에 불과한 희생 제사가 생생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율법 아래서 드린 예물과 희생물은 양심에 관한 한 결코 경배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들은 단지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천주교의 미사 즉 천주교 사제가 드리는 희생 제사

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천주교에서 매일 같이 성체 성사 즉 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1-12)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단 한 번 드리신 희생 제사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신자들의 양심은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이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께서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매일 드리는 미사라는 희생 제사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제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천주교 희생 제사의 희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사의 희생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하심과 우리가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기 위해 성직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의해 제단에서 드러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주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즉 빵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한 히브리서 9장 24-26절은 이 점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증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며 그래서 복되고 완전히 끝이 난 일이므로 그분께서는 결코 되풀이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 끝마쳤다는 표시로 이제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

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천주교의 제단이나 그 밖의 다른 제단에서 또 다시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단 한 번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해서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이 없느니라.”(히 10:18)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제께서 주장하는 천주교의 미사 즉 피 없는 희생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赦免)이 없기 때문입니다”(히 9:26).

이 세상의 어떤 논증으로도 이 같은 사실의 정당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충분하며 따라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제께서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제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사제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부인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천주교의 성체 성사가 주의 만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제께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단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 즉 애찬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오용한 것을 꾸짖은 다음에 어

떻게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할지 사도 바울이 상세히 가르쳤다는 점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우리가 주의 상에서 축복의 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서진 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 만찬입니다. 만일 사제께서 이 두 가지가 다 ‘미사라고 하는 천주교의 희생 제사’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사제께서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천주교의 미사와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주의 상을 천주교의 제단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와 이교도주의가 묘하게 혼합된 혼합물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천주교의 미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무 설득력이 없다면 제가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알려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 신학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 하며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면서 간청하건대 부디 이 일들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영원한 희생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제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제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십



자가의 그 영원한 사역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